

“언젠간 구승준처럼 절절한 사랑 해봐야죠”

2년전 태도 논란·섭식장애 증도하차
1년5개월 공백, 스스로 절책의 시간
‘불시착’ 통해 연기의 소중한 깨달아
“올해 목표는 영어…미리 준비해야죠”

연기자 김정현(30)에게 올해는 특별하다. 30대의 시작과 함께 데뷔 5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21.7%(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16일 마무리한 tvN ‘사랑의 불시착’이 그 포문이 된 것도 의미를 더한다. 이를 통해 차기 ‘로코(로맨틱 코미디 장르) 남주(남자주인공)’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그에게 드라마는 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 ‘전환점’이었다. “몸도, 마음도 아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었던” 1년 5개월의 공백을 훌훌 털어낸 계기였다.

“행복으로 나를 살찌우고 있는 요즘이에요.”

20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정현은 평온해보였다. 2018년 MBC ‘시간’을 통해 지독하게 겪은 ‘성장통’에 대해서도 이제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시 제작발표회에서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논란에 휩싸였고, 섭식장애 등으로 막바지 증도하차까지 했다. 2015년 영화 ‘초인’으로 데뷔한 뒤 줄곧



최근 막을 내린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김정현. 2018년 MBC ‘시간’ 제작발표회에서 겪은 태도 논란 이후 부쩍 성숙해졌다. 사진제공 | 오앤엔터테인먼트

상승세를 달리다 맞은 급정거의 여파는 생각보다 길었다.

“인간으로서도, 연기자로서도 스스로를 절책하는 시간이었다. 당시 ‘왜 사는가’ 고민을 깊게 할 정도로 힘들었다. 매 순간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를 내몰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지 못하니 미래의 나도 계속 벼랑 위에 서 있을 것 같더라. 그걸 깨닫고는 지금의 풍경과 내 주변을 둘러보고 느끼는 것에 최대한 집

중하려고 했다.”

지난 숨죽임을 김정현은 “마음에 살을 붙이는 재빨운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때 반성을 지표로 삼아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그 와중에 만난 ‘사랑의 불시착’은 “희망을 발견하게 해준 작품”이었다. 극중 북한에서 만난 서단(서지혜)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구승준 역으로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배웠다는 점이다. 자존감을 많이 되찾았다. 연출자 이정호 PD의 ‘즐겁게 하자’는 말이 힘이 됐다. 친구의 부모님들로부터 ‘밥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건 처음이다. 하루는 식당에서 ‘언제 남한으로 왔냐’며 응원해주는 분들도 만났다.(웃음) 그 모든 것들로 연기자란 직업이 참 즐겁고 귀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제 막 “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그로서는 아직 사랑보다는 일이 우선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느꼈을 때 멋있는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다. 드라마에 서처럼 절절한 사랑을 해본 적 있느냐 물으니 “아직은 없다”며 웃는다.

올해의 목표는 “영어 공부”다. 역시 최근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영향이 크다. “영화를 보며 느낀 에너지를 언젠가 각국의 다양한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조심스레 드러낸다.

“대화를 넘어 연기가 되는 수준으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래서 영어 연기 영상을 만들어놓을 생각이다. 많은 관객, 시청자와 경험이나 삶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기생충’의 박명훈 선배님도 ‘미리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다.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이하늘

2018년 10월 47세의 나이로 17세 연하의 연인과 늦깎이 결혼했던 그룹 DJ DOC의 멤버 이하늘이 1년 4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하늘의 소속사 슈퍼잼 레코드는 24일 오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슈퍼잼 레코드는 이날 이하늘과 부인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과정을 밟아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하늘 부부는 2007년 이후 11년 동안 교제 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국 파경을 맞아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하늘은 1994년 DJ DOC 1집 ‘슈퍼맨의 비애’로 데뷔해 ‘머피의 법칙’, ‘DOC와 춤을’, ‘나 이런 사람이야’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엄마’ 김태희의 영리한 선택 모성애로 시청자 사로잡다

tvN ‘하이바이, 마마!’ 6%대 시청률 호평



김태희

김태희의 영리한 선택이 그에게 새로운 전기를 안기고 있다. 로맨스 장르의 주인공에서 벗어나 연기 복귀작에서 처음으로 절절한 모성애를 표현하며 시청자 시

선을 붙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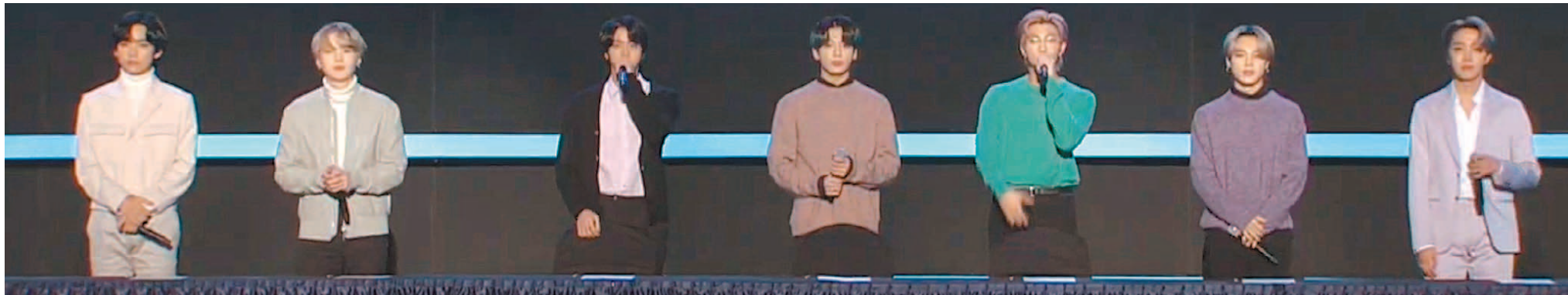
22일 첫 방송한 tvN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를 통해 김태희가 5년 만에 성공적으로 돌아왔다. 2015년 SBS ‘용팔이’를 끝으로 2017년 가수 비와 결혼해 잇따라 두 딸을 키우며 개인적 삶에 집중해온 그는 다시 활동을 준비하면서 드라마 출연작 선정에 고심하다 ‘하이바이, 마마!’를 선택했다. 어린 딸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의 이야기로, 아이를 낳은 뒤 달라진 감정을 연기로 풀어내고 싶다는 의지였다.

‘하이바이, 마마!’는 이제 1, 2회가 방송됐을 뿐이지만 김태희를 향한 반응은 고무적이다. 만삭에 당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가까스로 살린 아이를 향한 미련 때문에 5년 동안 ‘이승을 떠도는’ 엄마 역의 김태희가 시청자의 호감과 공감을 동시에 얻고 있다.

사실 김태희는 그동안 출연작에서 다소 어색한 연기로 아쉬움을 남겼고, 때때로 시청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시청률과 별개로 최근작인 ‘용팔이’나 ‘장욱정 사랑에 살다’ 등 드라마에서 어김없이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하이바이, 마마!’에서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가 처음 보여주는 모성에 연기 등 풍부한 감정 표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첫 회 5.9%(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출발해 23일 2회는 소폭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김태희는 “원래 제 모습과 가장 가까운 캐릭터”라며 “딸을 가진 엄마이자, 가정을 꾸린 평범한 가족구성원이란 점도 비슷하다”며 “아이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엄마의 절실한 마음도와 닿는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



그룹 방탄소년단이 24일 오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떠올리며 “한국은 역동적인 나라이고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빅트엔터테인먼트

BTS “우리들 이야기에 세계가 공감…음악의 힘”

‘맵 오브 더 솔:7’ 유튜브 생중계로 기자간담회
“시련·어두움 겪어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 답아”

“장르가 BTS인 음악! 그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자신들만의 장르를 ‘개척’하고 나섰다. 그 시작은 21일 공개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7)’이다. 힙합과 록, 팝에 가스펠까지 아우른 장르뿐 아니라 현대미술 분야까지 협업의 폭을 넓히면서 “예술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이 24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장르의 확장과 세계적 인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예술 분야, 언어만 다를 뿐 하나”

‘맵 오브 더 솔:7’의 주제는 ‘그림자(새도·Shadow)’와 ‘내면의 자아(에고·Ego)’다.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 이론에

서 따랐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상처와 시련을 담은 ‘새도’와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에고’를 녹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사를 한 앨범에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수록곡 리스트를 짰다”는 제이홉은 세계적 주목을 받는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감정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블랙스완’은 “아티스트로서 겪는 두려움을 고백한 곡”이며, ‘이터널’은 “시련과 어두움을 겪어도 앞으로 가겠다는 의지와 애고를 담은 곡”이라는 설명이다. 타이틀곡 ‘온(ON)’은 “(데뷔 이후)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끔은 휘청거리고 중심을 못 잡고 있기도 했던 때 무게중심 잡는 법을 알게 되면서 상처, 시련,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워내겠다”는 다짐과도 같다고 슈가가는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이 같은 철학적 콘셉트를

이미 1월 런던,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 뉴욕 등에서 개막한 프로젝트 ‘커넥트, BTS’에서도 펼쳐보였다. 현대미술 작가 22명이 방탄소년단 앨범의 메시지를 주제로 작품을 전시한 행사다. RM은 “공공예술의 힘을 빌려 세계 곳곳에 축제의 장을 열자는 의미로 기획했다”고 프로젝트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대미술과 음악은 형태만 다를 뿐, 가치와 시대성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의미는 같다”고 강조했다.

● “개인의 이야기가 범세계적 공감의 기반”

이미 앨범 발표 당일 265만여 장의 음반 판매고(한터차트 자료)를 기록한 것에 대해 슈가가는 “(성과에 대한)압박이 없으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이제는 목표보다 목적이, 성과보다는 성취가 중요한 시기”라며 의연

함을 드러냈다.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이 “나보다 3000배의 영향력을 가진 그룹”이라고 인정한 방탄소년단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어디서 나올까. RM은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세계 각국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며 “그 본질(마음)을 음악, 퍼포먼스, 소통 등 다양한 형태로 풀어냈기 때문에 신선하게 다가간 것”이라고 자평했다.

만행이자 1992년생인 진이 올해 입대를 앞두고 있지만 “평범한 우리들이 세계의 팬들과 ‘아미(ARMY·공식 팬덤)’ 덕분에 행운을 잡았다는 생각”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진은 “병역은 당연한 의무이며,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젠가는 갈 생각”이라며 “(입대)가 결정되더라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몬스타엑스, 美 ‘빌보드 200’ 차트 5위

BTS·슈퍼엠 이어 한국가수론 세번째
“몬베베 응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

그룹 몬스타엑스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5위에 올랐다. 이들은 처음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하면서 한국가수로는 그룹 방탄소년단과 슈퍼엠에 이어 세 번째로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3일(한국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14일 선보인 첫 영어 앨범 ‘올 어바웃 러브(All About Luv)’로 ‘빌보드 200’(29일자)에서 5위로 데뷔했다. 오프라인 음반 판매량과 함께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 및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더해 점수를 매긴 차트에서 이들은 5만2000점을 획득했다. ‘올 어바웃 러브’는 11곡의 수록곡을 모두 영어 가사로 부른 앨범으로, 미국



그룹 몬스타엑스

정규 1집에 해당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몬스타엑스는 앞서 지난해 미국 음반사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레이블 에픽레코드와 손잡고 세계 팝음악시장을 공략해왔다. 이

를 통해 ‘소셜 50’, ‘월드앨범’,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등 빌보드의 다양한 차트에서 선전했다. 동시에 미국 NBC 토크쇼 ‘투데이 쇼’와 ‘켈리 클라슨 쇼’ 등 현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다.

이번 빌보드 차트 5위 데뷔는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이제 이들이 확고한 팬덤을 확보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몬스타엑스의 서너는 “팬덤인 몬베베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